

순창 새로운 명물로 뜨는 '우슴자기'

전통자기에 팝아트 디자인...기쁨·행복 함께하는 마음 담겨
예능·드라마 방송 등장 시청자 입소문...유통망 확보 주력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에 이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전통적인 자기에 현대의 윗을 입힌 '우슴자기'를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우슴자기는 지난달 25일 채널A 대표 프로그램인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섬진강 쏘가리 편에 등장했으며 이후 KBS1 일일드라마인 '여름아 부탁해'에도 출연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슴자기는 청자 기능보유자인 고정(古正) 권운주 선생의 전통적인 자기에 팝아트 스타일인 피터 오(Piter Oh) 작가의 팝아트 기법을 가미해 새로운 도자기로 탄생했다.

특히 우슴자기란 이름은 '웃음을 통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오 작가의 인생 철학에서 비롯됐다.
또 습자가 한자인 합(合)자와 유사해 두 작가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을 뜻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하나로 합해지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권 선생의 조별 작업으로 나온 자기는 오 작가의 흠뻑리기와 그림 작업 등을 더해 재벌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와 관련 권은 현재 지역 내 강천산 휴게소, 순창 발효소스도굴 등 6곳에 우슴자기를 납품하고 있으며, 공항 면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마켓에도 업체 관계자들



전통적인 자기에 현대의 윗을 입힌 '우슴자기'가 순창의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슴자기 작품들. <순창군 제공>

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 우슴자기 탄생으로 윗기 체험관을 찾는 체험객들도 증가했다"며 "여기에 오 작가의 윗 하반기 윗업 전

사회에 순창 우슴자기를 전시하는 등 대한 민국을 넘어 윗까지 인지도 확장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순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갈등' 양상 시, 주민 반발에 원점 재검토...시의회 '취소 부당' 반발

순천시가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시의회가 승인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가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비 포함 13억원을 들여 승주읍 윗리 옛 전경부대 부지에 608㎡ 규모로 유기견 15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고 상임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승주읍 주민들은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부지가 수변 보호구역에 속한다며 환경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

주민 반대가 계속되자 허석 시장은 지난해 11월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집행부가 주민투표를 근거로 취

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홍준 시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에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해서 뭐가 확실한 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한 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정진 의장도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의결이라면 집행부 공직자에게는 의회의 승인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투표를 거쳐 반대표가 많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동물병원과 입양센터, 문화공간으로 구성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동물보호센터도 이와 연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익산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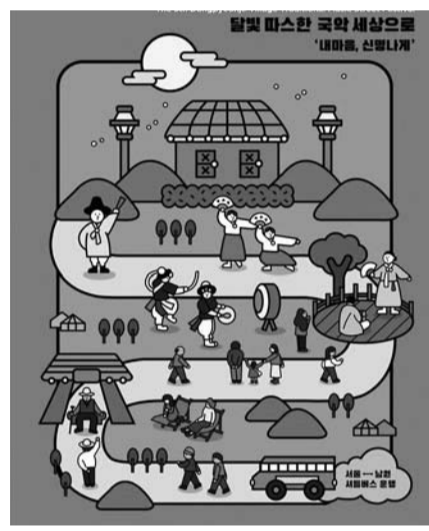
마동·수도산·모인공원 등 일몰제 적용 앞서 해결
민관협의회 구성...해당 지역주민 의견 청취·설명회

익산시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수립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올해 연말부터 토지매입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관협의회와 각 공원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공원 민관협의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구 시의원,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각 공원별로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마동·수도산·모인공원에 대한 민

관협의회는 지난 22일 열렸다.
나머지 공원은 조성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
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 공원별 세부 공원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
마동공원은 오는 28일, 수도산공원은 29일, 모인공원은 30일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취합해 공원 조성계획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vij@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 남원시 비전마을 등서 열려



'제5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24일부터 사흘간 남원시 비전마을과 전촌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해 축제에서는 안숙선·전인삼·채수정·김연옥 명창이 무대에 오른다.

두번째달, 블랙스트링, 노름마치 등 글로벌 국악 뮤지션들도 대거 참여한다.

전하제일탈공작소, 시흥시립전통연희단, 연희양상블 비단 등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매력적인 무대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장인 비전마을은 동편제 창시자 송홍록 선생의 생가가 있고 주변에 '국악의 성지' 등이 있어 동편제마을로 불린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150억 들여 공공실버주택 88가구 건립

정읍시가 지역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한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주

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실버주택은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복지관과 공공주택 88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이

달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며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시는 건립비와는 별도로 운영비를 매년 2억5000만원씩 모두 12억5000만원을 국비로 5년간 지원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고용위기 中 小 企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12개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용역량, 매출,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700만원, 총 1억4000만원의 기업성장지원금이 주어진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장이 있으며 종사자 10인 이상, 올해 3명 이상 신규채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다.
시는 사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점검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신안 흑산·가거도권역 기상특보 세분화 주민불편 해소

신안 흑산도권역과 가거도권역 기상특보 세분화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도와 가거도가 속해 있는 서해남부먼바다를 광주기상청과 협업해 서해남부 북쪽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로 세분화해 기상특보를 운영한다.

흑산도권역 주민의 주 생활권인 흑산도·홍도와 남쪽으로 67km 떨어진 가거도는 해양기상 특성이 다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체 해역에 대한 일괄적인 풍랑특보 발표로 흑산도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신안군은 이러한 흑산도·홍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관계기관 및 도서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광주기상

청에는 예·특보구역 분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광역으로 운영하던 서해남부 먼바다의 기상특보 구역을 서해남부 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 북쪽먼바다로 분리 운영하는 개선안을 광주지방기상청과 함께 마련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서해남부먼바다를 2개 권역으로 분리함에 따라 동풍이 불면 가거도만 풍랑특보를 발표하고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흑산도·홍도를 제외하게 된다"며 "이번 해상 기상특보구역 세분화가 흑산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